

개화기¹⁾의 낭만적 사랑-내방가사²⁾를 통해 본 근대성³⁾과 전통성

신 수 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I. 들어가며 : 왜 낭만적 사랑과 내방가사인가

- 1) 개화기 설정에 중요한 근간을 제시하는 근대화의 기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최창규(1972) 『근대한국정치사상사』, 일조각 ; 전미경(1999)에서 재인용). 첫째 개항을 근대화의 계기로 보는 1870년대설 둘째, 근대사의 설정을 근대어의 계기와 근대화의 출발이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한 다음 그것을 주로 ‘근대화의 출발’이라는 적극적인 입장과 연결시켜 1870년대보다 훨씬 이후라는 주장 셋째, 개항이라는 피상적 계기보다는 오히려 서구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조선조의 자기질서가 동요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민족자존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황을 포착하려는 1860년대 설이 그것이다. 본 고에서는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근대화의 출발’로서 1870년대 보다 훨씬 이후, 즉 실제적으로 서구 문물이 정착되어가는 시기를 개화기로 보았다.
- 2) 내방가사라는 명칭은 향유층의 사회 계층과 성별을 기준하여 명명된 것으로 ‘규방가사’, ‘한국규방가사’, ‘여류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내방가사의 전승, 전파 수단에 의해 ‘두루마기’, ‘가스’라 명명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내방가사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방가사 향유층의 사회 계층적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내방가사의 명칭을 ‘규중’, ‘규방’이라는 용어를 취하는 경향은 내방가사 발생 초기의 향유층이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이라는 사실을 근거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부터 양반 계층의 신분이나 인식에 변동이 생겨남으로써 양반이 아닌 서민 부녀자들도 신분적 상승을 위해 내방가사를 향유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창작 및 향유자 층이 늘어나게 된다. (이정옥, 1999: 129-132)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규방가사라는 명칭보다는 내방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3) 근대성은 현대문명을 낳게 한 기초가 되며, 근대화란 곧 서구화를 뜻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중세의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면서 전개된 것으로 자유주의·개인주의·경험주의·합리주의라는 계몽사상으로 설명되며(정재호, 1983)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결혼에서의 자유 선택,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에서 일할 권리 등이 사상의 핵심이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입된 서구 사상을 한국의 전통적 사상과 대비시켜 근대성이라 칭하였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 이후 시민 계층의 생활 및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가족이 일부일체제 핵가족의 형태로 전이되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다. 서구의 경우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 개인성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며(Giddens, 1992) 이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창출되었다.

낭만적 사랑은 감정에 근거해서 삶을 재질서화하는 과정이다. 18세기 말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낭만적 사랑은 정열적인 사랑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개인의 생활에 사랑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낭만적 사랑이란 정열적 사랑이 뜻하는 육감적이고 애욕적인 것들에 덧붙여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는 특성을 취하고 이는 자신의 일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에 매료되는 과정, 연애를 통한 친밀감의 획득, 결혼을 통한 행복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열렬하면서도 낭만적인 연애, 부모 세대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사랑으로 지속되는 부부 생활, 친밀하면서도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공간으로서의 가정 등이 중심 가치가 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김동식, 2001).

낭만적 사랑과 관련된 서구의 역사적인 경험이 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1890년대 후반부터 20세기초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전 근대적인 사랑은 공동체 윤리로서 법 또는 관습의 차원으로 미분화되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교 규범에 의한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권위와 여성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들이 개인 생활을 절대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대 이전의 사랑, 특히 부부간의 사랑이란 인륜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가족 안에서 부부유별이나 의리, 정절의 차원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감정이라기 보다는 가족 관습, 혹은 사회 관습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최혜실, 2000). 즉 근대 이전의 계층은 생득적으로 형성되었고 결혼제도 또한 이 생득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중매혼, 집안대 집안의 결혼 방식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사랑에 기반한 배우자 선택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사랑'논의는 부차적인 것으로, 때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개화기 사상, 특히 계몽사상에서는 자유연애 결혼론이 주장된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고 애국계몽, 부국강병의 측면에서 보아 사랑과 결혼은 부강한 나라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유연애 결혼은 권장되어야 한다(독립신문, 1898.7.20)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유연애 결혼론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및 생활 세계에 편입되는 데 있어 많은 모순을 낳았다. 그 중 하나로 개화기 지식인 남성의 이중적 가족 생활을 들 수 있다. 집안에서 선택하여 조혼(助婚)한 부인이 있고, 이 후 유학이나 기타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신여성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조강지처와 제 2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김진송, 1999; 최혜실, 2000) 개화기의 중심

가치인 계몽사상이 일반인의 현실 생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김진명, 1993)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가족 생활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배우자 선택이 전적으로 부모결정에서 선부모결정·후본인 동의, 선본인 결정·후부모 동의의 과정을 거쳐 전적인 본인 결정이 가능해졌고(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2001) 이 때 개인의 사랑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과거에 가족이 부계조상에서 아들에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개념보다 결혼에 의해 창조되고 시작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낭만적 사랑의 도입에 의해 생겨났고 애정적 동반자로서의 남녀간의 상호관계가 중요시되었다. 또한 자식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 생산체제 속의 도제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장기간의 온정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정서적 충족의 근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는 서구사회의 경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대성 형성, 낭만적 사랑을 통한 친밀한 공간으로서의 가족의 의미가 점차 커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낭만적 사랑의 도입과 정착은 개화기 이후 우리 나라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과거 한국 가족의 구성, 구조, 목표를 설명하는 데 전통적 가족주의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제 낭만적 사랑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대 가족을 분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낭만적 사랑과 결합하여 정서적 가족주의를 낳게 되었고(신수진, 1999), 현대의 부부관계도 사랑을 중심으로 한 우애적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낭만적 사랑의 도입과 정착과정에 대해 관한 연구는 근대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국 가족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낭만적 사랑의 한국 사회에의 도입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소설류의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당시의 신문, 잡지, 광고류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권명아, 2000; 김진송, 1999; 최혜실, 2000).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당시의 실제 생활에 대한 분석이기 보다는 지식인의 인식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 또는 일부 지식인의 인식 경험을 사회문화적 조건과 더불어 재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출판 또는 기사화된 이야기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일반 대중의 경험과 똑같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화기 내방가사⁴⁾를 중심으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가치, 정서

4) 연구 대상 자료는 개화기에 만들어진 시가로서 다음의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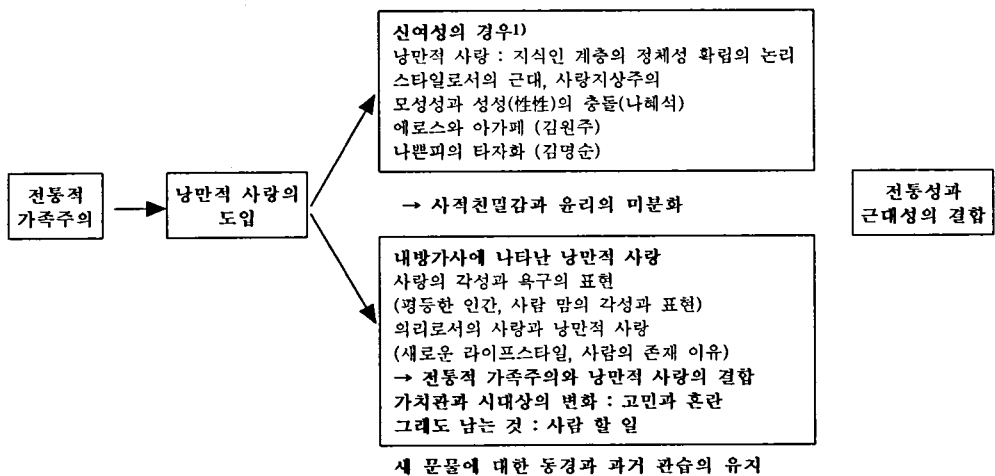
백의천사(권영철, 1990):순후하던 이 땅의 풍습이 변화하였음을 개탄하고, 특히 흰 옷 입고 절개를 지키던 여인을 백의의 천사라고 하여, 개화의 물결을 타고 분별없이 지내는 것을 꾸짖고 있다.

식골색시 설은타령(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시골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서울에서 공부하는 남편만을 믿고 온간 어려움을 다 참아왔는데 남편은 이혼할 것을 제의한다.

감회가 (권영철, 1990):고법이 흔들리며 사고의 형태가 만상으로 변해감을 탄식하는 내용

적 욕구에 녹아있는 근대성과 전통성의 대립 및 조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개화기 내방가사는 화자 독백체 형식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자기 경험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내방가사 중에서 현실 체험을 작품화한 “탄식류”나 “풍류소영류” 가사는 대개 작자가 직접 겪은 일을 자기고백 형식을 통해 누군가에게 호소하려는 의식을 반영한다(이정옥, 1999). 그러므로 당시 지식인의 인식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신문, 잡지, 소설 등에 비하여 내방 가사는 현실 생활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전근대 시기에 강조되던 의리로서의 사랑이 근대의 낭만적 사랑으로 변화하는 과정, 과도기적 메카니즘을 살펴볼 수 있게 하므로 한국 가족의 역사, 문화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II.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



1) 사랑의 각성과 욕구의 표현 : 근대적 개인

① 평등한 인간 : 문물의 변화 수용과 기대

오백년 서한정치 여성에게 어찌했나 남녀 칠세 부동석에 심칠팔세 되고 보면
시집살이 감옥안의 남존여비 못된 풍속 남자는 자유되고 여자는 노예로서
일생을 다하도록 인형생활 출입없다. 삼종지에 철망속의 칠거지악 밥을 먹고
현모양처 이불 속의 독수공방 꿈을 꿔다 천리는 순환커든 여자해방 없을 손가
<백의천사>

② 사람 맘

인간으로서의 사람 맘 : 남편을 향한 사랑 - 그리움과 야속함

상장가 (권영철, 1990):공부하러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무정하다 우리난군 지난여름 한번간후 온산천이 멀리 막혀 편지 한 장 전혀 없네
삼월삼진 강남으로 일년일도 오는 제비 옛집을 찾건마는 입은 어찌 안오내고
행여나 그리운 님 꿈에나 볼까하고 툇마루에 누웠으니 잠인들 쉽게 오나
<시골색씨 설은 타령>

전통적인 사람맘 : 시부모의 훈계

우리는 너희시절 책집지고 절간가서 두달석달 있다와도 저런 꼴 아니했다
<시골색씨 설은 타령>

③ 사람맘의 표현

발근 음성 귀에 쟁쟁 흰 얼굴 눈에 삼삼 나를 잊은 임잉건만 나는 어이 못 잊는고
피눈물로 먹을 갈아 나의 가슴 타는 간장 한 자 두 자 편지써서 입에게 보내볼까
<시골색씨 설은 타령>

자유와 관습의 대립

대문 밖 뛰어나가 열사열 열 안아줄까 말쟁많은 남의 이목 두렵기 하늘같이
<시골색씨 설은 타령>

사람맘의 실현을 위한 적극성 : 협박과 전통질서에 대한 도전

만국형편 발달하매 개명천지 노느라고 그렇게 그른 것을 중놈으로 아는 것이
아낙네 삼삼하지 여필종부 하옵기로 내역시 개명하오
신학서에 이른말이 남녀동권 질정하니 반가울사 그 말이야
부모가 시키시고 맥씨가 시키신들 듣는 자식 허무하지 개명발달 한다면서
나의 사정 모르실까 알면서 안오시니 무삼곡절 알 수 없오
아마도 안동읍은 색향으로 일렀더니 화류계에 정을 붙여 가무에 혼착한가
만약에 그리하면 안동읍 구재판에 작정대로 하오리다 재판을 아니하면 개머느리 되오리다
<상장가>

여보소 시부모님 두 분이 동방거쳐 백발토록 하였으니 그런 사정 아옵시니
바지하나 속옷하나 하정은 소소하나 만든 다시 받으시고
<상장가>

2) 의리로서의 사랑과 낭만적 사랑 :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의 도전

① 낭만적 사랑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 이혼

이혼이란 무슨 번고 이혼이란 무슨 일고 시집은 후 칠팔년간 한해 두해 허다 세월
쓰나다나 한 말 없이 누구위해 기다렸오 여서어서 세월가서 삼년이란 세월가면
우리집 졸업맞고 따스 가정 하렸더니 내 가슴에 그리던 꿈 아침풀에 이슬되고
<시골색씨 설은 타령>

② 사람의 존재 이유와 부부간 낭만적 사랑

죄없는 죄인노릇 자나깨나 눈물이라 턱을 괴고 홀로 앉아 천번만번 생각해도
죽음밖에 길이 없네 원통하다 내 팔자야 아내되어 남편에게 사랑 한 번 맛 못 보고
살아서 무엇하나 애달도다 내신세야 사람되어 이세상에 사람노릇 못한것이 살아서 무엇하나
<시골색씨 설은타령>

③ 그래도 남는 것 : 사람됨에 대한 기대

임도 역시 사람이라 눈물있는 남이시고 피있는 남이시니 하목숨은 못죽을 듯
 내가슴을 살피시면 남가슴도 아플지라 내설을 아시면 아니 동정 못하리라
 언제든 죽든 살든 남을 한 번 다시 만나 최후의 하소연을 남에게 해야겠네
 산과 들에 눈이 녹아 삼동석달 다지나고 어서어서 봄이가고 명년 여름 다시 오면
 찻집함을 다 풀리라 <시골색씨 설은 타령>

3)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낭만적 사랑의 결합

① 가치관과 시대상황의 변화 : 새로운 문물 속에서의 고민

사람맘과 세상일은 날로날로 날라가니 의지할 곳 어디메요 민을 이 누구메요
 <시골색씨 설은 타령>

② 그래도 남는 것 : 사람 할 일

좋은 세월 지나가고 변혁시기 되었구나 일몰조차 환탈되니 조물주의 시기로다
 형태만상 이러할세 다른법절 좋을손가 고대법절 없어지고 새시대가 되었구나
 우주간의 귀한 것은 사람이 제일이라 허영심도 제일이요 일동일정 비상하다
 연소한 청년들은 세월대로 지나가니 세월의 풍파난파 가구도 못 지키고
 부모님네 가정교육 전수하지 못하고서 홀동홀서 흔들거려 사람할 일 못 한다네<감회가>

삼강오륜 인간천축 민주주의 뺏어가고 남녀유별 좋은예의 동등권이 물너가고
 수지부모 좋은 머리 파마넨트 잘나가고 단혼호치 좋은 입술 불자불이 웬 말이며
 네부모 내부모 병어리 등신이 되어있고 네 아내 내 아내는 장돌뱅이 판을치니
 눈팔아 가르키던 학생이란 아들남은 삼강을 헤아리니 압록강과 대동강과 두만강을 헤아리고
 조상의 기일이라 지방을 쓰라하면 사각모자 아드님은 거주성명 써 붙인다
 자기마음 자기 믿고 시시로 자중하고 충암절벽 저 노승은 만고의 한 빛이니
 설중의 피는 매화 연연세세 한 뜻이니 괴엽다 네 뜻이여 흰옷입던 아녀자를 <백의천사>

③ 수용 : 새 문물에 대한 동경과 과거 관습의 유지

나도 어려 남과 같이 학교가서 배웠다면 이런 번고 없을 것을 후회한들 쓸 곳 있나
 때가고 남버리니 나의 팔자 어이 할꼬 님을 떠나 어디가며 가라니 원통하다
 이집떠나 어디가나 불경이부 가르침에 빼애새겨 못잊겠네 죽어도 이집에서 살아도 이집에서
 <시골색씨 설은 타령>

III. 결론 : 전통성과 근대성의 결합 : 과도기적 현상인가? 새로운 문화적 전통인가?

본 연구는 전통과 근대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 의식 아래 이를 현실 생활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전 근대사회에서 가족 생활의 중심축이 되었던 전통적
 가족주의가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적 가치와 만나는 시점에서의 생활경험에 대
 해 분석하기 위해 독백체 형식인 개화기 내방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동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재구성해 보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성과 근대성의 개념
 이 역사적 맥락에서 빚어내는 상호작용과 당시 병존에 따른 모순, 이에 대한 개인

의 수용과 가족 변화의 양상들을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포착해 보고자 했다.

연구 대상이었던 개화기 내방 가사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욕구, 즉 “사람 맘”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려 애쓴다. 또한 그러한 표현들이 당시 사회적 관습과는 불협화음을 나타나고 있음도 안다. 낭만적 사랑에 의해 이혼을 당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연의 자세인 “사람 됨”을 믿고, “사람 할 일”의 기준이 되는 기존의 관습에 순응함으로써 변화에 대해 적응해 나간다. 결국 새롭게 나타난 인간적 가치, 즉 개인의 욕구를 각성하지만 기존의 사회 관습과 윤리를 모두 저버리지는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개화기 낭만적 사랑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신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낭만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신여성들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견해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볼 때(김정일, 1998; 최혜실, 1999) 신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부인네들의 대처 전략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기로서 개화기의 낭만적 사랑의 양상이란 적극적이었던, 소극적이었던 모두 전통성과 근대성의 결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개화기라는 시기가 서구 사상과 문물에 적응해가는 때이므로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전통과 근대의 결합이 이루어져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시기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과도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화기가 서구 문물에 적응해나가는 단순한 과도기라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서구화가 진행, 완성되었다. 그러나 근대 속의 전근대로서 아직도 면면히 그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력은 우리가 개화기를 단순한 과도기로 여길 수 없게 한다. 특히 낭만적 사랑이 전통적 가족주의와 결합하여 정서적 가족주의(신수진, 1999)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 낸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서구의 옛 경험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근대를 살아오고, 미래를 살아가리라는 성급한 예측을 할 수는 없다. 정서적 가족주의란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낭만적 사랑을 주장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한국 가족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이러한 경험은 바로 개화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미 개화기에 시작된 것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결합을 통해 우리 특유의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전통이란 과거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익숙한 현재의 것들도 포함한다. 지금 우리의 삶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가늠하고, 태도를 표명하며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체계

속에는 전통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또 존재한다. 이른바 근대성이라 지칭되는 서구적 가치체계가 그것으로 범 문화적 상황, 세계화를 지향하는 데 당연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서양식을 도입한 교육제도 및 방식, 과학기술의 도입 등 우리가 소위 전통이라고 말하는 한국 고유의 가치체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들은 전통문화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열망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전통의 계승자로서의 '나'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새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개척자로서의 '나'가 한 개인 내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도 이러한 이중적 태도, 이중 가치체계의 확산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이중 가치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의 경우 한복과 양복, 한식과 양식, 한옥과 양옥이 존재한다. 날짜를 밝히는 달력 체제에 음력과 양력이 있다. 생일과 기제 등 개인, 가족단위의 기념일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기념하는 명절 등에도 음력과 양력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 신정과 성탄절은 양력으로 구정, 석가탄신일, 추석 등은 음력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의례, 특히 결혼식의 경우 신식혼례와 구식혼례로 신(新), 구(舊)의 구분이 확실하며, 대다수를 점유하는 신식결혼의 예복에서 그 혼란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혼 당사자와 신랑신부 아버지의 예복은 양복이지만, 어머니는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상례, 제례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식,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식 등 다양한 의례 절차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나타난 이러한 징후들의 근원이 바로 개화기에 비롯된 과도기적 양상들, 그러나 그러한 과도기적 양상으로서의 전통과 근대의 결합이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화기가 전통성과 근대성이 교차되는 과도기로서, 또는 그 당시 도입된 서구적 가치체계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개화기에 만들어진 전통과 근대의 결합이 또 하나의 문화적 전통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다. 낭만적 사랑의 도입과 정착에 대해서도 몇 몇 내방가사의 사례를 통해서 발견한 전통과 근대의 결합 양상은 그 이후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과 유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은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고 변화해가는 하나의 현상이다(조은숙·옥선화, 1995).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신화로서의 가족 이미지, 인식의 틀을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전통적 가족주의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대사회에 이르러 '단란한 핵가족에 대한 이상'을 만들게 된 또 하나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우리가 한국의 가족이 걸어온 길, 가족사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과정과 해체되는 과정,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여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전통적 부부 관계가 윤리 또는 관습적 차원에서 낭만적 사랑에 근거한 우애적 차원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화기 내방 가사를 분석해보았다. 결론은 아직 미지수이다. 몇몇 내방가사를 통해 살펴본 과도기적 현상, 또는 또 다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국 가족의 변화 동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될 개화기 이후 시기에 대한 낭만적 사랑의 정착 과정을 통해 또 낭만적 사랑의 정착과 더불어 형성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가족 이데올로기를 분석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 강창민(1983). 개화시가 연구. 연세어문학, 16. 연세대학교.
- 권명아(200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 권희영(1998). 1920-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 한국사회사학회.
- 권영철(1983).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경일(199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 한국사회사학회.
- 김동식(2001).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 모더니티와 사랑의 발견. 문학과 사회, 53. 문학과 지성사.
- 김진명(1993). 굴레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 김진송(1999).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 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 서영숙(1985).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식골색시 설은 타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 어문연구회.
- 신수진(1999). 사회변동과 전통적 가족주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한국가족관계학회.
- 신영숙(1986).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결혼 문제. 한국학보, 45.
- 안승옥(1986). 규방가사에 나타난 자아발견의 양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인(2000). 에로스와 욕구-플라톤이 묻는 한국인의 사랑. 전통과 현대, 13. 전통과 현대사
- 이정옥(1999).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전미경(1999). 개화기 가족 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옥선화(1995).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3(1). 대한가정학회.
- 정재호(1983). 가사문학에 나타난 근대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19. 정신문화연구원.
- 조 은(1995).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 조명. 광복 50주년 기념 논문집 8 : 여성.
-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79). 규방가사 I : 가사문학대계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 Sexuality, Love and Erot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황정미 옮김(1995). 새물결).